

# 강 의 계 획 서

<b>교과목명</b>	기후변화와 에너지 선택문제	<b>담당교수</b>	안상욱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

## 1. 교과목의 개요

<b>목 표</b>	교토의정서 이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는 EU와 EU회원국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<b>단 원</b>	<b>주 요 내 용</b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본 수업을 통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 세계 에너지 사용 현황과 에너지원별 장단점</li> <li>2. 교토의정서와 기후변화 대응</li> <li>3. EU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</li> <li>4. EU회원국 내 에너지 믹스 운용의 다양성</li> <li>5. EU회원국의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</li> <li>6. EU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의 기후변화 대응사례</li> </ol>

## 2. 교재 및 참고도서

가. 교 재 : 안상욱, 『EU, 미국, 동아시아의 에너지정책』, 한국학술정보, 2018.

나. 참고도서 : EU 집행위원회 기후변화 대응 정보 포털

[https://ec.europa.eu/clima/policies/eu-climate-action\\_en](https://ec.europa.eu/clima/policies/eu-climate-action_en)

4. 주별강의 계획서

주 별	강 의 내 용
제1주	<p><b>전 세계 에너지 사용 현황과 에너지원별 장단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화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함. 이에 따른 탄소배출의 확대에</li> <li>따라서 인류는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.</li> <li>- 석탄, 석유, 천연가스, 원자력에너지, 신재생에너지 등은 각 에너지원별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.</li> <li>- 각 에너지원별 전 세계 지역에서의 운영현황에 대한 파악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이해</li> </ul>
제2주	<p><b>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변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997년 12월 11일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(COP3)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, 부속서 1국가에서 1990년 보다 온실가스를 5.2%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가 설정됨. 미국과 호주 등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하는 가운데, EU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토의정서 발효가 가능하게 됨.</li> <li>- 2015년 파리협정 체결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이 기후변화대응에서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게 됨</li> <li>-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6월 파리협정 탈퇴에 따라서 탄소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</li> </ul>
제3주	<p><b>EU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EU는 2008년에 ‘2020 기후·에너지 패키지(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)’를 채택하였고, 본 계획에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% 감축,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20%로 확대, 에너지 효율 20% 증대 등 3가지 ‘20-20-20 목표’를 설정.</li> <li>- EU는 1990년 대비 20% 온실가스 감축을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2014년에 이미 달성하였고,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 목표에서도 일부 EU 회원국은 이미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% 이상으로 확대.</li> </ul>

제4주	<p><b>EU회원국 내 에너지 믹스 운용의 다양성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EU 회원국은 2020 기후·에너지 패키지(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)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관련하여 각국의 목표를 정했고, 모든 EU회원국에서 화석연료 사용비중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이 확대. 특히 EU 회원국 중 12개국은 2005년과 2014년 기간 동안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두 배로 증가시켰고, 9개국은 각 회원국의 2020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음.</li> <li>- 반면에 네덜란드, 영국, 아일랜드, 프랑스는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. EU회원국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은,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52.6%를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과 4.5%에 불과한 룩셈부르크처럼 회원국 간 상황이 매우 상이.</li> <li>- 원자력에너지 운용에서도 프랑스와 같이 원자력발전 의존비중이 높은 국가와 독일과 같이 탈원전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와 체코와 같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가 공존하고 있음.</li> </ul>
제5주	<p><b>EU회원국의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EU내 산업별 탄소배출에서 운송수단은 에너지산업 다음으로 탄소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임</li> <li>- 원자력에너지 의존비중이 높은 프랑스의 경우는 운송수단이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임. 따라서 EU회원국은 운송수단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.</li> </ul>
제6주	<p><b>EU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의 기후변화 대응사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세계 각국은 발 빠르게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한 자동차를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워왔음. 프랑스의 경우 역시 중앙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, 자동차기업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시스템 정착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하였음.</li> <li>- 프랑스 중앙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인센티브제도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 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있음. 특히 프랑스는 2008년에 유럽국가 중 가장 빨리 친환경 자동차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음.</li> <li>- 파리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프랑스 도시들이 전기자동차 대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. 프랑스 지방정부는 전기자동차 대여서비스 운영뿐만 아니라, 오염배출 노후 자동차 도심진입금지 정책을 통해서 노후 자동차의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음.</li> <li>- 프랑스 자동차 기업도 전기자동차의 개발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, 전기자동차 개발에 매진하였음.</li> </ul>